



Original Article

간호대학생의 그릿,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과의 관계

채여주^{ORCID}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Yejoo Chae^{ORCI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Yejoo Chae (yjchae413@hanmail.net)

Abstract

Purpose: An attempt was made to understand the grit,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in an urban area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career identity. **Methods:**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using the IBM SPSS 29.0 progra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grit,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were calcula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Grit,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and ANOVA, correlations between grit,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beta=0.46, p=.003$) in model 1 and resilience ($\beta=0.63, p<.001$) in model 2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The explanatory power increased to 25.7% in Model 1 and 61.4% in Model 2. **Conclusion:** We recommend further research to develop and test the effectiveness of a resilience promotion program to improve career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Keywords: Nursing students, Grit, Resilience, Career Identity

주요어: 간호대학생, 그릿,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 요구도와 질 높은 간호의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이직률과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 당 활동 간호사는 4.2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7.9명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1]. 또한 우리나라 병원간호인력 배치 현황상태에서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52.8%로 일반간호사의 이직률인 23.7%보다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신규간호사의 조기 이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2]. 이처럼 양질의 환자간호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간호사에 대한 인력 관리가 필요한데, 학생에서 간호사로의 변화를 겪게되는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3].

그릿은 대상자의 성취나 성공을 위해서 실패나 역경이 생겨도 인내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개인이 가지는 열정으로 정의되는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나 환경적 자극에 의해 향상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4]. 이는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학업과 임상 실습을 병행하는 힘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이다[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그릿은 진로정체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것은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7],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진로정체감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이나 시련 등과 같은 실패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오히려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도전하게 하는 마음이다[8].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상황에서의 적응능력과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내고 있다[9, 10].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의료기술이나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 상황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임상실습 환경에서 회복탄력성과 같은 내적역량강화 증진요인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그것과 회복탄력성은 서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의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11]

진로정체감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흥미나 능력 및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본인이 처한 환경적인 모호함이 있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자기 확신이다[12]. 진로정체감은 간호대학생에서 간호사로 전환될 때 자신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해주어 이들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근속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13]. 또한 신규 간호사가 퇴직을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 역할 부적응과 간호학생 시기에 정착된 진로정체감 확립이 불충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간호사로서의 지속적인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직업적인 목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처럼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어져 있는 간호대학생은 대학생생활 동안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필요하고, 간호사로서의 진로를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진로정체감을 확립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해 다각도의 중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그것은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7], 임상실습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15].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것과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것,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을 확인하고, 이들의 영향요인으로 그것,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중재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그것,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고 이들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는 2개의 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으로 설정한 결과 중간효과크기(f)=0.15, 검정력($1-\beta$)=.80, 유의수준(α)=.05, 예측요인 8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수가 109명으로 나타났다. 총 110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1부를 제외한 총 10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그것

본 연구에서의 그것은 Duckworth와 Quinn [4]이 개발한 도구를 Song과 Lim [5]이 번안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그것이 높음을 의미한다. Song & Lim [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9이었다.

2)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의 회복탄력성은 Yang 등 [16]이 개발한 도구(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RN_KNS)를 사용하였으며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84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7이었다.

3) 진로정체감

본 연구에서의 진로정체감은 Holland 등[12]이 개발한 진로정체감 검사 18문항을 Kim [17]이 번역하고, Kwon과 Kim [1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Kim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그릿,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그릿,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은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그릿,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이들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작성을 실시하였다. 설문 도중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종료 후 3년 뒤 폐기될 것임을 알렸다. 또한 설문에 응한 자에게는 설문작성 후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그릿,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차이

대상자는 여성 77.1%, 남성 22.9%였고, 평균 연령은 23.6 ± 2.94 세로 25세 이하가 86.2%, 25세 초과가 13.8%였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57.8%, 있는 경우가 42.2% 였다. 학업성적 정도는 중 73.4%, 상 19.3%, 하 7.3% 순이었고, 전공만족도 정도는 만족한다 50.5%, 보통이다 42.2%, 만족하지 않는다 7.3% 순이었고, 대학생활 만족도 정도는 만족한다 51.4%, 보통이다 38.5%, 만족하지 않는다 10.1% 순이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는 학업성적 정도($F=13.75, p<.001$), 전공만족도 정도($F=35.10, p<.001$), 대학생활 만족도 정도($F=24.57, p<.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학업성적 정도($F=4.51, p=.013$), 전공만족도 정도($F=11.10, p<.001$), 대학생활 만족도 정도($F=6.60, p<.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학업성적 정도($F=3.46, p=.035$), 전공만족도 정도($F=19.21, p<.001$), 대학생활 만족도 정도($F=12.72, p<.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of Grit, Resilience, Career Identity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continued) (N=10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rit		Resilience		Career ident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5(22.9)	3.39 ± 0.70	0.65(.520)	3.51 ± 0.72	0.67(.505)	2.95 ± 0.61	0.83(.408)
	Female	84(77.1)	3.30 ± 0.59		3.39 ± 0.76		2.84 ± 0.60	
Age(year)		23.6 ± 2.94						
	>25	94(86.2)	3.28 ± 0.65	-1.40(.166)	3.39 ± 0.75	-0.94(.349)	2.84 ± 0.60	-1.00(.320)
	25≤	15(13.8)	3.52 ± 0.33		3.59 ± 0.76		3.00 ± 0.57	
Religion	No	63(57.8)	3.28 ± 0.69	-0.87(.386)	3.40 ± 0.77	-0.32(.754)	2.83 ± 0.61	-0.63(.528)
	Yes	46(42.2)	3.38 ± 0.49				2.90 ± 0.59	
Academic performance	Good	21(19.3)	3.83 ± 0.72 ^a	13.75(<.001)	3.77 ± 0.67 ^a	4.51(.013)	3.06 ± 0.55 ^a	3.46(.035)
	Moderate	80(73.4)	3.24 ± 0.50 ^b	(a>b,c) [†]	3.37 ± 0.74 ^b	(a>c) [†]	2.85 ± 0.59 ^b	(a>c) [†]
	Bad	8(7.3)	2.75 ± 0.60 ^c		2.91 ± 0.82 ^c		2.42 ± 0.63 ^c	

Table 1. Differences of Grit, Resilience, Career Identity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rit		Resilience		Career ident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ajor satisfaction	Good	55(50.5)	3.64 ± 0.47 ^a	35.10(<.001)	3.67 ± 0.65 ^a	11.10(<.001)	3.11 ± 0.45 ^a	19.21(<.001)
	Moderate	46(42.2)	3.11 ± 0.51 ^b	(a>b>c) [†]	3.26 ± 0.75 ^b	(a>b>c) [†]	2.71 ± 0.60 ^b	(a>b>c) [†]
	Bad	8(7.3)	2.27 ± 0.43 ^c		2.56 ± 0.65 ^c		2.01 ± 0.50 ^c	
College life satisfaction	Good	46(51.4)	3.61 ± 0.46 ^a	24.57(<.001)	3.65 ± 0.68 ^a	6.60(.002)	3.07 ± 0.49 ^a	12.72(<.001)
	Moderate	42(38.5)	3.12 ± 0.56 ^b	(a>b>c) [†]	3.22 ± 0.70 ^b	(a>b>c) [†]	2.75 ± 0.59 ^b	(a>b>c) [†]
	Bad	11(10.1)	2.55 ± 0.61 ^c		2.98 ± 0.92 ^c		2.21 ± 0.60 ^c	

† Scheffe test

2. 그릿,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의 정도

대상자의 그릿은 평균 3.32±0.62점(범위 1-5), 회복탄력성은 평균 3.42±0.75점(범위 1-5), 진로정체감은 평균 2.86±0.60점(범위 1-4) 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s of Grit, Resilience, Career Identity (N=109)

Variables	Range	M±SD	Skewness	Kurtosis
Grit	1-5	3.32 ± 0.62	-0.13	0.52
Resilience	1-5	3.42 ± 0.75	-0.29	-0.93
Career identity	1-4	2.86 ± 0.60	-0.71	-0.61

3. 그릿,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그릿($r=.51, p<.001$), 회복탄력성($r=.74,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복탄력성은 그릿($r=.48,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Grit, Resilience, Career Identity (N=109)

Variables	Grit	Resilience	Career identity
	r(p)	r(p)	r(p)
Grit	1		
Resilience	.48 (<.001)	1	
Career identity	.51 (<.001)	.74 (<.001)	1

4.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대상자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학업성적 정도, 전공만족도 정도, 대학생활 만족도와 그릿, 회복탄력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자료는 정규분포를 보였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2.41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며, Tolerance 0.31~0.80, VIF 1.24~3.6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델1에서 전공만족도 정도($\beta=.46, p=.003$)인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2에서 모델1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추가적으로 그릿, 회복탄력성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beta=.63,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설명력은 모델1에서 25.7%, 모델2에서 61.4%로 증가하였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Identity (N=109)

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1.64	0.25		6.64	<.001	0.50	0.23		2.20	0.03
Academic performance	0.03	0.11	.02	0.25	.807	-0.10	0.08	-.09	-1.24	.218
Major satisfaction	0.44	0.14	.46	3.08	.003	0.15	0.11	.16	1.35	.182
College life satisfaction	0.04	0.14	.04	0.26	.793	0.07	0.10	.07	0.66	.513
Grit						0.11	0.08	.11	1.28	.203
Resilience						0.50	0.06	.63	8.89	<.001
	Adj R ² =.257, F(p)= 12.11(<.001)					Adj R ² = .614, F(p)= 32.76(<.001)				

IV. 논의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는 2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그릿,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고 이들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총 109명으로 3학년과 4학년에 걸쳐 임상실습 경험을 한 이후의 학생이었고, 응답자 중 92.7%가 전공만족도에 보통 이상으로 대답을 하였고, 89.9%가 대학생활 만족도에 보통 이상으로 답한 것을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생활과 전공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 평균 점수는 3.32 ± 0.62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의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평균 점수인 3.63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7], 간호대학생 1학년에서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평균 점수인 3.18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9]. 본 연구대상자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전체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그릿 점수보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및 본 연구에서의 4학년 학생들의 그릿 점수가 높음을 감안할 때, 4년간의 대학생활과 임상실습 과정을 거치면서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릿의 하위요인은 노력에 대한 꾸준함과 관심에 대한 지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내와 의미가 유사한 노력의 꾸준함은 목표 성취 과정에서 생기는 좌절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되는 습성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지속성은 장기간의 목표를 자주 바꾸지 않고 일관된 관심을 유지하게 한다[4, 20]. 그러므로 국가고시 합격, 임상에서의 어려움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3.42 ± 0.75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회복탄력성 평균 점수인 3.71점과 유사하였다[21].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간호사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21], 학부생활동안 회복탄력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임상간호사가 된 후 높은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높은 회복탄력성 점수를 보이던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된 후 떨어진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평균 2.86 ± 0.60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진로정체감 평균인 1.99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22], 1학년부터 3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평균 점수인 2.65점과 유사하였다[23]. 본 연구 대상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임상실습을 거치면서 이들의 간호사에 대한 진로정체감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으로 확인되었고($\beta=0.63, p<.001$) 이들의 설명력은 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하였다[24]. 또한 회복탄력성은 진로정체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15]. 회복탄력성은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마음가짐으로써, 본인에게 닥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대학생과 달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완수하여야 하고,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처럼 대학생활에서 겪어 되는 여러 힘든 상황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일수록 이들의 진로정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4학년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의 그릿,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고 이들이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 대상자는 일개 시에 속한 2개의 대학에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일반화에 대한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도시·급별, 학년별, 전공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4학년 간호대학생의 그릿,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을 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Funding

None.

Authors contribution

All work was done by Yeojoo Chae.

References

1.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1. [December 3, 2021]. Available from <https://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2. Hospital Nurses Association. Hospital nursing personnel placement status survey. 2023, Seoul. [May 3, 2024]. Available from <http://khna.or.kr>
3. Park M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metacognition on the career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3;23(23):85-95.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23.8>
4. Duckworth AL, Quinn P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2009;91(2):166-174.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5. Song HS, Lim S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of the grit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6(3):322-331. <http://dx.doi.org/10.5977/jkasne.2020.26.3.322>
6. Suh MO.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grit and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21):729-750.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1.729>
7. Yun MJ, Jin HK. Influence of grit and self-elasticity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23;9(6):1135-1141. <https://doi.org/10.17703/JCCT.2023.9.6.1135>
8. Kim JH. Resilience. Seoul: Wisdomhouse; 2011. 21 p.
9. Choi YH.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3;23(20):237-247.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20.237>
10. Baek KH, Joh MO.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0;18(6):363-371. <https://doi.org/10.14400/JDC.2020.18.6.363>
11. Park HJ.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transitional shock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4;24(6):482-491. <https://doi.org/10.5392/JKCA.2024.24.06.482>
12. Holland JL, Daiger DC, Power, PG.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1980.
13. Gilvari T, Babamohamadi H, Paknazar F. Perceived professional identity and related factors in Iranian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BMC Nursing*. 2021;21(1):279. <https://doi.org/10.1186/s12912-022-01050-6>

14. Lim BM, Park JM, Kim MJ, Kim SY, Maeng JH, Lee RL.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turnover experience of novice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5;24(4):313-322. <https://doi.org/10.5807/kjohn.2015.24.4.313>
15. Oh DN. The impa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resilience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22;13(5):435-443. <http://dx.doi.org/10.15207/JKCS.2022.13.05.435>
16. Yang YH, Kim EM, Yu M, Park SM, Lee HY.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5;27(3):337-346. <https://doi.org/10.7475/kjan.2015.27.3.337>
17. Kim BW, Kim K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7;9(1):311-333.
18. Kwon YH, Kim JN. Effect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002;13(2):216-229.
19. Jung MR, Jeong 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6):414-423. <https://doi.org/10.5392/JKCA.2018.18.06.414>
20. Duckworth AL., Peterson C, Matthews MD, Kelly DR.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7;92(6):1087-1101.
21. Park EM, Song YS.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3): 357-365.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3.357>
22. Ku SM, Jang YM, Kang MH.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thical awareness, and nurse image on career identity in a pandemic situation.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22;28(4):371-381. <https://doi.org/10.11111/jkana.2022.28.4.371>
23. Jung JS, Jeong MJ, Yoo IY.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1):27-36.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27>
24. Jo JH, Jo OH. The effect of isolation, depressi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1;19(9):435-444. <http://dx.doi.org/10.14400/JDC.2021.19.9.435>